

덴마크 여왕 영접 이천 도자체험

김문수 경기도지사, 첫 국민방한 마르그레테 2세 영접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마르그레테 2세 덴마크 여왕이 이천 도자체험을 함께 했다.

김 지사는 이천시 설봉공원 세계 도자센터에서 덴마크 여왕을 영접하고, 도자전시관 관람에 이어 인근 해강도자미술관을 방문해 도자 체험을 즐겼다.

해강도자미술관에서 김지사와 여왕은 해강선생의 전시작품을 둘러본 뒤 도자체험관으로 자리를 옮겨 물레 체험관, 도자문양 그리기 체험, 전통가마불지피기를 차례로 관람했다.

마르그레테 여왕은 직접 도자점 시 문양그리기 체험과 전통불가마에 장작을 직접 던져 넣는 등 짧지만 즐거운 도자체험 기회를 맞

봤다.

김지사는 여왕에게 "알려진 것처럼 역시 여왕님의 미술실력은 대단하다"고 말하자, 여왕은 "과거엔 작품활동을 많이 했는데 최근엔 기회를 갖지 못해 아쉽다. 그리고 한국 도자가 너무 아름다워 남편이 오늘 동행하지 못한 게 매우 아쉽다"고 답했다.

또한 마르그레테 2세 여왕은 "물레치는 모습을 보면 무슨 기법이라고 하느냐"고 물으며 세심한 관심을 갖기도 했다.

마르그레테 2세 여왕은 전날인 6일 남편 헨리크 공과 함께 입국했고, 이번 방문은 덴마크와 국교 수교 이후 첫 국빈 방한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0월1일 국민방한중인 마르그레테 2세 덴마크 여왕과 이천시 해강도자미술관을 방문해 도자체험관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최대의 호재

남북정상회담 관련 경기도 후속 대책

경기도는 10월5일 김문수 도지사 주재로 남북정상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관련하여 도의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교류위원과 통일문제 연구센터가 참여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합의가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에 최대의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경제협력 및 평화분위기 조성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경협 배후기지 및 물류지원 등으로 경기북부지역의 투자 필요성 및 타당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로 경기 서북부지역의 내용적 경제선 확대,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시발점이자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본방향을 >경기북부지역

신 종합발전구상 수립 >한강 하구 공동개발 >개성공단 협력단지 조성 >DMZ평화생태공원 조성 >경제특구(해주 등) 건설참여를 통한 남북 경협사업 본격추진 >남·북한 간 교통신프라 연결 및 통합 >남북한 공동방재 및 방역 사업추진

>농업협력 및 지역개발사업 지속추진 >사회문화교류 사업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이고 밀접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10월5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04 남북공동성명의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도지사 주재의 남북교류위원회를 개최했다.

제22회 회룡문화제 다채롭게 계획

10월10일부터 13일까지 시내 일원에서

올해 22번째를 맞는 의정부시의 대표적인 축제인 회룡문화제가 10월10일 경기도제2청사 앞에서 개막

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시내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시민의날 개막식과 함께 하는 개



올해 22번째를 맞는 의정부시의 대표적인 축제인 회룡문화제가 10월10일 경기도제2청사 앞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시내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막 첫날인 10일에는 제2청사 앞 특설무대에서 시민의날 기념 모범시민 포상과 더불어 시 예술단과 초청가수의 축하공연이 흥겹게 펼쳐지며, 이어 제2청사앞에서 화려한 불꽃놀이가 있을 예정이다.

다음날인 11일 오전9시 의정부예술포럼 야외무대에서는 동별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주민자치센터 수감생작품전시회 및 발표회가 열리고, 오후1시에는 동요 경연대회인 제4회 회룡동요제가 열린다.

또한 11일 오후7시 동막교 광장과 다음날 12일 오후7시 부용천 수변무대에서는 동별 참가자랑대회 예선전으로 시민 '끼' 자랑대회가 열린다.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오전10시 청소년광장에서 시민체험 프로그램 행사가 열리며,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는 성악, 현악, 관악, 피아노 등의 경연대회인 제2회 회룡음악콩쿨대회가 열린다.

이외에도 10월2일부터 13일까지 의정부예술포럼에서 동아리 작품전시회와 10월10일부터 13일까지 시청 앞 북계주차장에서는 전통 체험 프로그램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시는 이번 축제를 한 지역에 편중하지 않고 시 전지역을 순회하며 모든 시민들이 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특히 시민참여 프로그램 다양화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문화 대축제행사로 마련했다.

이러 평화의광장에서는 청소년들의 동아리공연인 청소년회화제가 열리며, 오후1시 시청앞 특설무대에서는 각종 동아리 공연인 시민참여공연이 펼쳐진다.

오후6시에는 상설야외무대에서 동별장기자랑 결선 시민 '끼' 자랑대회가 열리며, 특히 이번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왕실행차재현이 13일 오후5시 의정부예술포럼에서 출발, 신시가지 중심가를 돌아 시청 앞에 도착하게 되며, 이어 야외무대에서는 의정부시무용단과 합창단, 베트남 초청무용단의 전통무용공연이 즐거움을 선사하고 초청가수의 화려한 폐막공연과 아름다운 불꽃놀이로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이외에도 10월2일부터 13일까지 의정부예술포럼에서 동아리 작품전시회와 10월10일부터 13일까지 시청 앞 북계주차장에서는 전통 체험 프로그램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시는 이번 축제를 한 지역에 편중하지 않고 시 전지역을 순회하며 모든 시민들이 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특히 시민참여 프로그램 다양화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문화 대축제행사로 마련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예술의전당, 연이어 업무제휴

하남문화예술회관과 공연정보 공유키로

제)의정부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과 하남문화예술회관(관장 김태기)의 업무제휴 협약 조인식이 10월2일 오전 11시에 의정부예술의전당 회의실에서 양사의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는 지난 8월 노원문화예술회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이후 두 번째 업무제휴다.

그동안 의정부예술의전당은 노원문화예술회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조금씩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양사의 유료회원에 대하여 연례 할인혜택을 주고 있어 어느 한 공연장의 회원이라도 보다 좋은 공연을 편리한 시간에 골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 고객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내방 고객이 많은 공연장 내의 광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광고 노출 빈도를 높여 광고효과를 극대화 할 여지를 마련

했다. 특히 양사가 마케팅 활동에 서로 협력함으로써 지명도 있는 공연을 홍보하는데 광고의 도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이러한 협력관계의 효과는 인근 공연장으로 전파되었고 마침내 하남문화예술회관과 두 번째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유치 관리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양사간의 업무 제휴는 정보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특화된 공연장의 모델을 제시하는 시너지가 될 것이며 고객들에게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게 하여 세계적인 공연을 저렴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경쟁사보다 효율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으로서 고객 증원 및 수입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지방검찰청, 10월 벌금 미납자 일제 단속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박상욱)은 벌금형을 받고도 납부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미납사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국가 형벌권을 확립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관내 벌금 미납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10월 한 달간을 벌금 미납자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을 총동원하여 벌금 미납자 특별 검거 기동반을 편성, 관내 전 지역에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벌금 미납자를 집중 검거해 나갈 계획이다.

검거된 미납자가 미납된 벌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하여 벌금 미납액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노역장 유치 집행할 방침이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벌금을 미납 중이거나 납기가 임박한 사람은 반드시 벌금을 완납하여 벌금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를 하고 벌금을 기한내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납편의를 최대한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진주교방긱거리춤 김명신 문화관광부장관상 수상

本紙 협찬, 제9회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 성료

(사)한국무용협회 의정부시지부(지부장 이미숙)가 주최하고 의정부시가 후원해 마련된 제9회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에서 진주교방긱거리춤을 선보인 김명신씨(전북 익산시 모현동)가 영예의 대상상을 차지했다. 대상은 문화관광부장관상이다.

10월7일 의정부예술포럼에서 개최된 이날 경연대회에는 60여명 80여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벌였으며 의정부시, 문화관광부,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포천신문사가 협찬

해 마련했다. 이날 이현자(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준보유자)심사위원장은 "오늘 날씨가 흐린것처럼 무용을 하다보면 좋은 날도 흐린 날도 있기 마련"이라며 "학생들의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고 일반부 참가자들의 실력도 예년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번대회 이미숙(한국무용협회 의정부시지부장) 대회장은 "예년에 비해 참가작품은 적었지만 실력 있는 학생들과 일반부 춤꾼들이 참가

해 수준 높은 실력을 선보였다"며 "내년에는 더욱 실력있는 참가자들의 많은 참여로 열린 경연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대회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일반부 및 대학부 >대상 김명신(전북 익산시) >최우수상 태해신(서울시 강남구) >우수상 이정민(서울시 서초구) >장려상 장은진(의정부시) >장려상 이진원(서울시 강서구) >고등부 한국무용 >최우수상 전진우(계원예고 3년) >우수상 고경선(의정부여고 3년) >우수상 이하혜(상우고 1년) >장려상 최푸름(서울국악고 2년) >장려상 이나리(화흥고 1년) >장려상 한송이(용호고 2년) >장려상 한송(서울국악고 1년) >장려상 노혜림(원광여고 2년) >장려상 이하나(용호고 3년) >장려상 김해지(계원예고 3년) >장려상 김혜령(계원예고 2년) >고등부 외국무용 >최우수상 김지현(자운고 3년) >우수상 윤단비(원미고 3년) >우수상 진주(삼동고 3년) >장려상 박미란(청원고 3년) >장려상 장혜연(계남고 3년) >중등부 한국무용 >최

- 우수상 박유리(예원학교 3년) >우수상 박채원(연천중 3년) >우수상 강연경(서경중 2년) >장려상 박재원(의정부 5영(연천중 3년) >장려상 이예림(용호중 1년) >장려상 김지연(보영여중 3년) >장려상 김소라(갈월중 2년) >장려상 김수진(금파중 1년) >장려상 윤현수(대치중 3년) >중등부 외국무용 >최우수상 김빛하나(신방학중 2년) >우수상 오선주(3년) >우수상 오선주(1명(3년) >장려상 김미라(중2년) >장려상 허연지(중1년) >초등부 고학년 한국무용 >최우수상 윤선우(중내초 5년) >우수상 유예빈(동서초 5년) >우수상 정유정(대동초 5년) >장려상 안혜진(중원초 5년) >초등부 고학년 외국무용 >최우수상 방소영(도당초 6년) >우수상 황정미(중흥초 5년) >초등부 저학년 한국무용 >최우수상 국다슴(의왕덕성초 3년) >우수상 승은지(군포육천초 4년) >우수상 김시연(단동초 2년) >장려상 백승휘(김포서초 2년) >장려상 손희정(원종초 3년) >장려상 백진이(김포서초 4년) >장려상 김희원(신흥초 2년) >초등학교 저학년 외국무용 >최우수상 서지영(서울방학초 3년) >우수상 김지윤(서울창도초 4년) >장려상 전예은(원종초 2년) >미도자상 김명신(서울시 도봉구) >특별상 김빛하나(신방학중 2년)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사)한국무용협회 의정부시지부가 주최하고 의정부시가 후원해 마련된 제9회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에서 진주교방긱거리춤을 선보인 김명신씨가 영예의 대상상을 차지했다.

개발과 보전 상생 정책 발굴

제3차 서울청-한강청 정책협의회

수도권의 국토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환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간에 제3차 정책협의회를 10월4일 개최해 제1~2차 정책협의회에서 제안된 '야생동물 로드킬 문제점 개선'을 위한 생태통로 건설방안' 등 5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 추진계획을 협의했다.

야생동물 로드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전문가 합동조사를 조속히 완료해 조기에 생태통로 설치 작업에 착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시범 사업구간을 시행하기로 했다.

건설공사 현장 합동 점검에 대해 정기대비 점검을 시작으로 총 24개 현장을 합동점검해 왔던 점으로 인한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고 한강하류 정화습지 관리에 대해 서울청

의 한강하구 하상변동조사 연구용역과 한강청의 한강하구 생태계의 효율적 보전방안 수립 연구용역에 상호 참여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한강유역청에서 마련중인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동참여해 수질, 수량 관련자료 및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했다.

이번 정책협의회 결과에 따라 그동안 별개로 추진되어 왔던 개발과 보전을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증진은 물론, 생태 도로·하천 조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앞서 지난11월29일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한강유역환경청간 상호 협력력을 토대로 개발과 보전에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발굴 및 업무협의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한강유역환경청이 제3차 정책협의회를 10월4일에 개최했다.

이미숙의 전통춤 이야기 18 진주교방긱거리춤(晋州敎坊긱거리춤)

한국춤의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 나타낸 춤

진주교방긱거리춤(晋州敎坊긱거리춤)은 1997년1월30일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춤이다.

진주 교방긱거리춤은 진주 교방에 의해 전승되고 있는 긱거리춤을 말한다. 교방이란 기녀(妓女)들의 악·가·무(樂·歌·舞)를 가르치던 기관을 가리키며, 무속금지령에 의해 무당이 교방으로 들어가면서 시작된 춤이기에 교방긱거리춤이라 일컫게 되었다.

교방긱거리춤은 긱거리장단인 자진타령가락으로 시작하여, 열불가락에서는 타령가락보다 자진가락이 많이 들어간다. 차분하면서 끈끈하고, 섬세하면서 애절한 느낌을 준다.

진주 교방긱거리춤은 한국춤의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는 전통무용으로 진주에 사는 김수악씨와 보존회에서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진주교방긱거리춤은 1900년대 이후 승무와 더불어 예기들에 의해 교방에서 예술적으로 다듬어졌으며, 고흥 황제시 궁중무희였던 최완자 씨가 1940년대부터 전통무용으로서 지도하였고, 당대 명기들로 하여금 판소리와 함께 연출하였으며 춤사위의 이들도 음악의 창법이나 가락의 호칭과 혼용하여 쓰게 되었다.

춤의 성격은 차분하면서 끈끈하여 섬세하면서 애절한 무대로서 정·중·동의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어 무아지경에 이르게 하는 매력을 갖추고 있다.

이 춤은 조선조의 하류로 관리제도가 금지됨으로써 궁중예기들이 기녀조합을 결성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가·무·악으로 그들의 생업을 삼게 되었다. 한편 무속의 금지령에 의해 무당이 사찰과 관기로 분화되면서 무무



가 기방으로 이입된 것이 발단이 되었다. 교방에서는 이 춤사위를 교방긱거리춤으로 까지 승화시켜 오늘에 이른다.

문의: 의정부시무용단 031-877-8891
이미숙 단장